

'대백제 학술포럼' 개최

익산시·6개 시·군, 백제역사축제 교류·협력 선언

정현을 시장이 백제문화권 6개 시·군과 함께 백제 역사와 문화를 소재로 개최되는 축제의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해 교류·협력하기로 했다. 정 시장은 23일 서울시 송파구청 대강당에서 열린 대백제 학술포럼에 참석해 백제문화권 6개 시·군 지자체장과 함께 각 도시 간 교류·협력 선언식을 진행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백제문화 고문으로 활동하는 노중국 교수의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백제의 탄생과 성장', '백

제의 통합과 교류의 현재적 의미', '백제역사문화축제 관계자 종합토론'의 순으로 진행됐다. 또한 축제를 주관하고 준비하는 6개 시군의 부서와 기관 관계자들이 서로 격려하고 소통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익산시를 포함해 선언식에 참가한 서울 송파·경기 하남·경기 광주·충남 공주·충남 부여는 백제의 건국부터 삼국통일의 꿈으로 이어지는 문화유적이 산재하고, 백제 역사와 문화를 주제로 지역의 대표축제를 개최하

는 지역이다. 정현을 시장은 "오늘 선언식이 과거 찬란했던 백제문화의 재조명과 정체성 확립에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교류를 통해 백제역사문화축제 상호 간의 성공적인 개최를 이끌고 백제문화 관광도시로서의 자긍심을 더욱 높여겠다"고 전했다. 한편 익산의 대표 역사인물축제인 '익산시동축제'는 코로나19를 극복하며 지친 시민에게 빛의 희망을 선사하기 위해 오는 11월 6일부터 28일까지 23일간 개최될 예정이다. /김재훈 기자



군산시 구암동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 김영남)가 주민센터에서 군산내 초등학교(교장 김윤범), 관내 어린이집 4개소 대표와 지역사회 내 교통약자인 아동의 보행안전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고 23일 밝혔다.

아동의 안전이 무엇보다 '우선'

군산시 구암동 지사보험, 어린이 안전 지키기 사업 전개

군산시 구암동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 김영남)가 주민센터에서 군산내 초등학교(교장 김윤범), 관내 어린이집 4개소 대표와 지역사회 내 교통약자인 아동의 보행안전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고 23일 밝혔다. 협의체는 관내 초등학교 주변에서 공사가 계속적으로 시행되고, 주요 간선도로의 인도가 협소해 어린이들의 안전이 항상 우려됨에 따라 아동용 교통안전용품인 속도제한 캠페인 안전우산과 가방연결형 안전반사경을 제작해 관내 초등학교, 어린이집에 배부했다. 이번에 배부된 교통안전용품은 어린이 안전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성

숙한 교통문화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건설 구암동장은 "지역의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도움이 손길이 필요한 사각지대를 찾아 어려움을 함께하며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5월부터 격주로 경로당에 꽃(생화) 배달 서비스를 제공해 코로나19로 인해 증가한 어르신들의 심리적 우울감 해소 및 정서적 안정에 도움을 드리고 있으며, 방역수칙을 준수한 안전한 경로당 운영관리에도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군산=고병만 기자

익산 공공 승마 인프라 하반기 준공

복합 승마시설 공정률 65% 11월 전국승마대회 개최



익산시가 말산업 활성화를 위해 조성 중인 공공 승마 인프라가 하반기 준공된다.

익산시가 말산업 활성화를 위해 조성 중인 공공 승마 인프라가 올 하반기 준공된다. 특히 시는 준공 시점에 맞춰 유치한 전국 규모 대회를 활용해 지역 말산업 인프라를 적극 홍보하고 이를 연계한 관광 활성화에도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23일 시에 따르면 용안면 난포리 일대에 조성 중인 '복합 승마시설'이 오는 10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며 현재 6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총 사업비 100억원이 투입됐으며 용안면 난포리 3만19천여㎡ 규모의 부지에 실내·외마장, VR 말산업체험관, 원형마장, 승마체험 공간이 들어선다. 공공 승마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승마장 관리·운영 조례 제정 절차를

거치고 있으며, 준공 후 2개월간 시범 운영을 통해 시스템을 보완하고 2022년 1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이와 더불어 시는 지역 천혜의 자원인 용안 거대역새단자에 약 10km의 승마길을 조성한다. 승마길은 다음달 착공에 들어가며 오는 9월까지 마무리

할 방침이다. 시는 하반기 인프라 준공 시기에 맞춰 전국 규모 대회를 유치하는 성과도 거뒀다. 마사회 공모사업을 통해 총사업비 1억5천500만원에 달하는 '익산시장애 전국 승마대회'를 유치했다. /김재훈 기자

홍남동 미원광장, 추억의 만월고무신 세워져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주민주도로 미원광장에 경정 고무신 조형물이 설치되며 눈길을 끌고 있다. 군산시는 최근 지역 주민들과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고무신 조형물 제막식을 개최하고 미원광장의 변화 발전을 축하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23일 밝혔다. 고무신 조형물은 홍남동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옛 미원동에 위치했던 경정고무의 만월표 고무신을 모티브로 과거의 활발했던 생산황

동의 주체인 노동자들을 기억하고, 군산 야구의 전통을 이어오고 있는 인근 남조중학교 야구부 역사를 기념하고자 만들어졌다. 이기만 도시재생과장은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지역 주민들과 화합하고 친목을 다지며 주민 주도로 이루어진 도시재생의 결과물을 볼 수 있어 뜻깊고, 삶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해 왔던 이곳 미원광장을 시민들이 많이 찾아와 옛 기억과 추억의 공간으로 느껴보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홍남동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은 지난 2018년 국토교통부 공모에 선정돼 총사업비 3억2천만원으로 마을장터 개설, 미원광장 환경개선 등의 사업을 실시한 주민참여 소규모 재생사업이다. /군산=고병만 기자

익산 농촌 마을 2곳, 쾌적한 주거환경 '탈바꿈'

주거 환경이 열악한 익산 농촌마을 2곳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으로 탈바꿈된다. 시는 다음달부터 합월을 상지원마을과 오산면 중흥마을을 대상으로 정부 공모사업인 '농촌마을 취약지구 생활여건 개조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상지원, 중흥마을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비율이 높고 방치된 폐축사, 30년 이상 된 노후주택, 전체 주택의 45% 이상이 슬레이트 지붕으로 둘러싸여 있는 등 주거환경이 매우 취약한 지역이다. 이번 사업으로 향후 4년간 상지원마을 20억원, 중흥마을 14억원 등 사업비 총 34억을 투입해 빈집정비·슬레이트 지붕개량 등의 노후주택 정비 사업을 실시한다. 또한 폐축사 철거, 협소 도로 정비,

재난 안전 무선방송시스템 설치 등 생활·위생·안전 인프라 구축과 마을환경개선 사업이 추진된다. 사업이 완료되면 해당 마을은 현대화된 농촌 마을로 재탄생돼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은 물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 기대된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주관한 공모로 취약지역 주민들의 기본적인 생활 수준 보장을 위해 안전·위생 등 중요한 생활 인프라 구축과 주거환경 개선, 주민역량 강화 등을 지원하는 국책사업이다. 시는 해당 사업에 응모해 합월을 상지원마을·오산면 중흥마을 두 곳이 선정되며 폐거를 거두었으며, 지난해에는 여산 사월마을이 선정돼 현재까지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김재훈 기자

지역 소식통

군산시 신용보증재단 이동출장상담소 운영

군산시는 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유용우, 이하 전북신보)이 이동출장상담소를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전북신보는 지역 내 금융·사회 취약계층의 가정경제 안정과 성실실패자의 경제적 자립·자활을 위한 채무조정 및 금융복지 원스톱상담이 가능한 이동출장상담소를 오는 7월부터 군산고용플러스센터 1층(매주 수요일 10:00~16:00)에 운영한다. 채무조정(개인파산, 개인회생, 신용회복) 및 재무상담, 채권협상, 지자체 복지프로그램과 연계한 금융교육, 금융사고 예방 교육 등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통해 금융소외계층의 실질적 자립을 지원한다. 전북도 도민이면 누구나 상담 가능하다. /군산=한영봉 기자

군산시 농민 공익수당 확인절차 이행

군산시는 '전북 농업 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약칭 농민 공익수당)의 신청·접수가 완료됨에 따라 오는 7월 15일까지 지급대상자 충족여부 확인 절차를 들어갔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지난 2월부터 5월 21일까지 농민 공익수당 신청·접수를 완료 한 바 있으며, 7월~8월 중 제외대상자 이의신청 기간 운영 후 지급 적합대상자를 선정해 9월 추석 전에 농민공익수당 카드(지역화폐)를 지급할 예정이다. 농민 공익수당 지원 대상은 2년 이상(2018. 12. 31. 부터 지속) 전라북도 내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돼 있으며, 1,000㎡ 이상 경작하고 있는 농가다. 문영업 농업기술센터소장은 "9월 추석 전 농민공익수당 카드(지역화폐) 지급을 목표로 함으로써 농업인뿐만 아니라 군산 상권에 활기를 불어넣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농민 공익수당'은 농촌을 위해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유지 및 증진시키기 위해 지난 2020년부터 시행 중인 사업이다. /군산=한영봉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112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